이웃교회 주일 낮 공동예배

시간 / 오전 11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주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교우들) 주여, 이곳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찬송/ 19장

공동체 고백/ 인간은 타자를 위해 존재하며, 타자에게 의존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 자유란 타자를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귐 속에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갖길 소망합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참회의 기도/

(인도자) 주여, 우리의 입이 정의보다, 자신의 필요를 택했나이다.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자) 주여, 우리의 손이 나눔보다, 자신의 욕망을 택했나이다.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자)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개인의 만족을 위해 썼음을 용서하소서.
나보다는 우리, 나의 나라보단 주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기도/

(인도자) 주여, 우리의 무지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돌보소서.
이 시간도 힘의 논리로 소외당하는 삶을 사는 이들을 돌보소서.
공의의 주여, 정의를 말하는 이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억압과 착취의 현장에서 우리가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삶의 시간을 주를 따르는 삶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정의와 함께하는 모두가 그 마음 변치 않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우들) 아멘.

성시교독/ 36(시 90편)

찬송/ 369장

성서낭독/ 눅 18:1-14

설교/ 잠잠히 서서

찬송/ 486장

헌금과 기도/ 53장 1절

주기도/

교회이야기/

축복기도/

생각해봄 : 잠잠히 서서

바쁜 시대를 살아갈수록 스스로를 생각해볼 시간은 점점 없어지지요. 결국 인간이면서도 인간다움을 생각해보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 얻고 쌓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그 더 공허함이 늘어가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은 '인간다움' 혹은 '사람다움'이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다시금 인간다움을 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 비유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얻어내라'는 단순함이 아닙니다. 사실 과부는 당시 시대상 중 무력함의 대표를 뜻합니다. 당시 힘의 논리에서 철저하게 배제 당하던 이가 '정의'를 위해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얻어냄'이 아니라, '복구'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 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를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음에서 벗어나고자 해결해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최소한의 존엄성 - 인간다움에 대한 복구를 요구하는 것이지요. 1절의 비유에 대한 핵심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다움의 희망을 가지고 놓치지 않는 삶을 과연 볼 수 있을까요(8절 말이)?

두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첫 번째 비유 즉,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방법에 대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어떠한 삶의 방법을 가지면 그것을 절대화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이외의 것을 구분하거나 쉽게 단정짓게

되지요. 첫 번째 비유에서 말하는 인간다움에 대한 희망이 혹은 남을 재단하는 칼이 되어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할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움에 대한 강조와 삶의 방법이 기득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면서 늘 겸손하게 세리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세리는 당대의 죄인이었습니다. 그가 얻어내는 세금 중 일부는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세리는 어쩌하든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의로워짐'을 예수 그리스도에 얻었더라도 늘 죄인인 것처럼 말이죠. 즉, 벗어날 수 없는 욕망과 죄를 피해서 마치 자신의 인간다움을 좇는 것이라 착각하지 말고 또한 그것을 통해 남을 재단하지 말고, 우리는 스스로의 인간다움을 직시하여 겸손하게 주위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진정 인간다움의 첫 걸음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제 2 과 : 입사식

오늘은 좀 어려운 단어에 대해 공부해보자. 제목에 나와 있는 '입사식'이라는 거야. 입사식은 '성인식'이라고도 하지. 오래 전에 우리나라 가수가 아주 이상한 춤을 추면서 부른 노래의 제목이 성인식이기도 한데 그건 가사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란다.

'입사식'은 인간이 겪는 통과의례의 하나야. '통과의례'라는 어려운 말이 또 나오는구나. 통과의례란 '통과제의'라고도 하지. 아빠가 언젠가 누

업시간에 통과제의라는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잘못 알아듣고는 '통과 제리' 라고 하더구나. 항상 만화만 보는 아이들 귀에는 만화제목 밖에 들어오지 않겠지.

통과제의, 또는 통과의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한 집단에서 또 다른 집단으로 옮길 때 행하는 의례를 말한다. 쉬운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하는 세례식도 일종의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단다. 세례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신분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 그때 행하는 의례가 바로 세례식이지. 돌잔치도 통과의례란다. 아이가 태어나서 일 년이 지났음을 축하하는 의식이 돌잔치잖아. 돌 이전의 어린애가 일 년의 기간을 무사히 지나고 비로소 정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축하하는 의식이지.

또 통과의례에 어떤 것이 있을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졸업식이나 학교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입학식 역시 통과의례란다. 얼마 전 대학생들이 신입생 환영식에서 신입생들의 옷을 벗겨 속옷만 입힌 채 대학정문에 세워놓아 망신을 주는 신고식을 했다고 비난하는 뉴스가 나왔잖아? 그런 부끄러운 짓도 역시 통과의례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단다.

인간이 겪는 통과의례는 무수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출생, 성인, 혼례, 장례' 와 관련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또 성인이 되는 것, 결혼을 하는 것, 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의식이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때 행하는 의례가 가장 대표적인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단다. 특히 성인식은 아주 중요한 통과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독립된 성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되는 의식이기 때문이지. 이렇게 통과의례의 절차에서 치르게 되는 의식을 '입사식' 이라고 한다. 아빠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지는 조금 참고 기다려보면 알게 되니까 지금 설명이 좀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저 설렁설

걸 읽고 넘어가면 된다.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더 읽어보거나 또 우리의 친절한 친구인 백과사전을 활용하면 되지.

아빠는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어떤 원시부족의 성인식을 본 적이 있어. 그 부족은 남자애들이 성인식을 치를 나이가 되면(대개 12세에서 14세 무렵이지)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떼어다가 숲속에 따로 마련된 오두막으로 데려가지. 그곳에서 그 부족이 전승해온 신화나 그 부족의 비밀스런 이야기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야. 그 부족의 어른으로서 알아야만 하는 내용들이지.
그리고 그 의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소년들은 모두 의식에 필요한 복장을 하고는 커다란 나무 앞으로 몰려가는 거야. 그 나무에는 커다란 말벌통이 매달려있는데 성인식을 치를 소년들은 한명씩 그 나무에 올라가 말벌통을 때리고 내려오지. 말벌이 바보도 아니고 자기 집을 건드리는데 가만 둘 리가 없잖아. 소년은 말벌에게 쏘이게 되는 거야. 그것도 한두 번 쏘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쏘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얼마나 아프고 괴롭겠니? 어떤 소년은 너무 충격이 커서 죽게 되기도 한대. 하지만 대부분의 소년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고 정신을 되찾지. 그렇게 호된 의식을 치르고 나면 그 소년은 비로소 그 부족의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야. 성인식은 부족마다 다 달라서 어떤 부족은 성인이 되기 위해 몸에다 구멍을 뚫기도 하고, 어떤 부족은 멀쩡한 이빨을 뽑기도 하고, 어떤 부족은 높은 바위를 맨발로 뛰어넘기도 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중에 '번지점프'라는 게 있잖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리에 줄을 매고 그대로 뛰 떨어지는 짜릿한 스포츠 말이야. 그 스포츠 역시 어느 부족의 성인식에서 빌려온 것이란다. 번지점프는 대체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부족의 성인식은 안전과는 거리가 좀 멀어. 그래서 성인식을 잘못 하다간 머리가 깨져서 죽기도 하지.

성인식, 또는 입사식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이전 사회로부터 분리되는 단계, 그 다음은 중간 단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는 단계로 구분된단다. 새로운 집단, 새로운 사회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로부터 분리되어야 하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단계를 거쳐야 해. 그런데

그 애매한 중간단계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혼란스런 단계가 되지. 그리고 그 혼란의 시기에 겪게 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라는 것. 그것이 성인식의 특징이야. 앞에서 얘기한 부족이 말벌에 쏘이거나 다리에 줄을 매고 떨어지거나 몸에 구멍을 뚫거나 하는 입사식은 모두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한 것들이지.

다시 기독교로 돌아와 보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입사식인 세례식을 볼까? 아빠가 군인이었을 때 아빠가 있던 부대 안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침례교회였어. 그래서 세례가 아닌 침례를 했는데 아빠는 성가대원이어서 침례 의식을 할 때마다 그 곁에서 찬송을 불렀지. 그 덕분에 침례 의식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단다. 침례를 받을 대상이 된 사람은 먼저 자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이젠 세상 풍습을 따르고 마귀의 유혹을 따르는 더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의식에 참가하는 거야. 목사님은 그 사람이 세상과 벗을 삼고 살았던 그 시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는지를 물어봐. 그럼 그 사람은 이전 사람으로서의 삶을 버렸고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지. 그러면 목사님은 그 사람을 물로 데려가. 어떤 침례교회에서는 강이나 시냇물로 가기도 해. 아빠가 군대에 있을 때는 커다란 목욕탕에서 침례를 했지.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목욕탕 물속에 푹 담근단다. 온몸이 물속에 푹 잠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금방 꺼내주지도 않아. 저러다 저 사람 숨 막혀 죽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할 만하면 쑥 끌어올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예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야.

원시부족의 입사식과 비슷한 면이 있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물속에 들어가 죽음과 비슷한 고통을 경험하고, 물에서 올라오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야. 이처럼 사람들이 이전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사회로 통합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의식을 '입사식'이라고 한단다. 아주 어려운 용어이지만 앞으로 우리 공부를 위해 반드시 알아

야 하는 것이니만큼 꼭 알아두길 바란다. <제 그과 끝>

- "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는 고전문학을 전공하신 한기호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글 모음으로 앞으로 계속 연재될 계획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문화적, 언어적 특성의 이해를 동반한 고전 읽기의 필요성

Ἐν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καὶ ὁ λόγος ἦν πρὸς τὸν θεόν, καὶ θεὸς ἦν ὁ λόγος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이 문장은 당시 그리스철학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기 위해 λόγος(로고스; 말씀)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국어로의 번역은 단지 '말씀'이지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하는 말을 뜻한다기보다는 이성, 질서, 원리, 법칙 등 좀 더 넓은 범위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의 'λόγος', 즉 '말씀'이라는 단어가 당대의 그리스철학(헤라클리투스, 플라톤, 스토아학파, 필로 등의 영향아래에 놓여있는)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 것과 같이 인간의 사고도 '말씀', 즉 언어와는 떼 놓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인 대학자 파우스트는 급기야 요한복음의 'λόγος'를 처음에는

'Wort(말, 단어)', 'Sinn(뜻, 의미)', 'kraft(힘, 권능)'으로 번역했다가 결국에는 'Tat(행위, 행동; 하신 일)'로 번역하는데, 이는 파우스트가 기독교의 신을 믿지 않으므로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장치이자, 더 나아가서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번역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지요.

이처럼 한 텍스트를 같핥기로 이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텍스트를 본 사람의 사고도아저 파악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자체의 의미에 겁중하기보다는, 아니 겁중함과 동시에 그 텍스트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약보다 이전에 쓰인 구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신약에서는 그래도 헬레니즘 문화권 내에 거주하는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합리적,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논증하고자 했지만 구약을 본 유목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는 그런 검증자체가 이루어질 리가 없었지요. 그들은 그저 신을 찬미하고 두려워할 뿐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쓰인 'אֱלֹהִים(Elohim;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문제가 명확하게 풀리지 않아(주류 기독교에서는 이미 논파됨)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אֱלֹהִים(Elohim;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신을 뜻하는 El, Eloah의 복수형태인데 이를 현대의 히브리어나 아랍어가 속한 셈어족을 제외하면 표면적으로는 '신들'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단순한 텍스트적 해석 이전에 역사 문화적으로는 '다신교 신앙을 가졌던 유목민족이 주변나라의 영향을 받으면서 민족의 구심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최상위의 유일신 개념을 만들어서 정체성을 보전할 수 있었으므로 관습적인 개념이 남아 있는 것이다', 언어적으로는 '신의 장엄함, 헤아릴 수 없는 크기를 나타내는 특수한 개념이다'라고 알게 되면 자연스레 이 표기는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히브리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신이 여러 명 있는 것이니 뭐니 터무니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신은 오리지널들이라고 주장하는 라엘의 '라엘리안무브먼트' 처럼 어느새 주류 기독교 교리에 반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글의 독자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아무 신앙도 없는 분들은 이런 주류에 벗어난 해석을 독특하고 신선하다고 느끼실 수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배경지식 함양과 그에 따른 역할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보훔 루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인기님의 연재입니다.

<이웃교회 첫번째 야외활동을 마쳤습니다>

이웃교회의 야외활동이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냥 아이들을 돕기 위한 마라톤이었죠. 다만, 이웃교회의 야외활동이란 말을 제가 계속 한 이유는 교회와 사회가 구분되어있지 않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생각만 조금 해보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많다는 것을 이 야외활동을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또한,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특별히 우리끼리 무엇인가 한 것은 없었지요. 보통 교회라 이름으로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마라톤과 부스활동에 겁중하는 것이 진짜

참여요 확동이란 생각에서 말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론 리더쉽에 의해 우르르 다니는 것을 그다지 좋게 여기지 않는지라.. 최대한 자유로운, 그러나 자발적인 그런 이야기 나눔과 밥상 나눔이 되길 바랐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도 조금 있어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먼 곳에서 오신 한기호님 송은실님 가족 아이들 하나하나가 솔직히 기억이 안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부러운 가족이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최연석님과는 제대로 이야기도 못 나눠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대로 뭔가 다들에게 한 것이 없이 저 혼자 바빴지요. Wyclif Luke님과 이근하님은 아라톤 동안 손을 꼭 잡고 다니셔서 손에 땀띠날까 걱정 좀 했습니다. 김병극님 몇 주 만에 뵈어 너무 기분이 좋았구요. 앞으로 전국투어 너무 부럽습니다. 이창원 권사님과 김인애님 가정,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딸들 만큼이라면 저희 겁도 둘째를 진지하게 고민할거 같습니다. 이석준 형제 내일 뵈어요. 주원이를 저대신 돌봐주셔서 제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정신묵님 여자친구를 데리고 함께 아라톤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일찍 가셔서 아쉬웠어요. 김범일님 지금의 고민들이 열매 맺게 될겁니다. 빨리 주보에 진화론과 창조과학 연재해 주시길.. 김해은님 김영환님 유환석님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아쉬웠고 나름의 길들이 주님의 계획안에 잘 이뤄질 것이라 믿습니다. 홍차 잘 마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영석님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웃교회 이야기]

1. 예배에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2. 이웃교회 첫 야외활동을 손꼽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나를 위한 시간만은 아니란 것을 고민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3. 이웃교회 주보에 새로운 연재가 시작됩니다. 언어에 관한 연재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를 쓰는 곳의 문화와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서 역시도 여러 언어들로 기록이 된 점을 우리가 알고 있듯,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연재가 될 것입니다. 이 연재는 보훔 루르 대학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아시아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민기님께서 수고해주시겠습니다.

후원계좌 : 이웃교회 국민은행 663301-04-086126

블로그 : goodsaram.tistory.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dsaram12

이메일 : goodsaram12@hanmail.net

이웃교회 위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146동 앞 피아노학원

(둔촌동역 2번출구, 둔촌초등학교 뒤편 상가 듀오피아노학원)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블로그, 페이스북, 혹은 이메일을 통해 미리 연락드리면 맛있는 예찬을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